



2017 성차별 보고서 - 차별은 어떻게 혐오의 언어가 되었나



2017.10.31 | 천주희_새사연 연구원 | chijru@saesayon.org

성차별은 오래된 사회 의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여성혐오가 온/오프라인에서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 살인사건, 몰래카메라, #문단_내_성폭력,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해시태그 운동 등 이제 성차별뿐만 아니라 폭력에 노출된 일상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여성혐오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 문제제기를 하고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30대 여성들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말하고 해석의 장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새로운 흐름은 더 이상 차별이 상식이 아닌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자,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현장보고서는 2017년 9월 28일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 3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관하고 작성한 글이다. 더불어 기념 토론회에 맞춰 발간한 민우회 <2017 성차별 보고서>¹⁾를 통해 오늘날 여성들의 차별 경험과 언어를 살펴본다.

나여기 캠페인

: 1999년과 2017년, 여성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나

민우회에서는 1999년 <나여기 캠페인>을 통해 학교, 직장, 공공장소, 관청, 가정 등에서 발생한 성차별 사례 2,050건을 수집한 적이 있다. 당시 4월~5월 동안, 450명의 여성이 이 캠페인에 참여했고, 수집 방식은 수첩에 성차별을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수첩기록은 참여자가 자신의 차별을 기록하면서 차별 체감도를 높이고, 동시에 불합리한 상황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의식화 과정을 목적에 탁월했다. 그로부터 2차 캠페인을 진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여기 캠페인 2>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고, 1,257명이 설문조사에, 10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집한 사례는 총 4,788건이다. 주로 서울 및 경기도(72.5%) 거주자가 많으며, 10대~30대가 67%이고 이 중 20대 참여율은 24%로 높다.

1) <2017 성차별 보고서>는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womenlink.or.kr/publications/19433>



1999년과 2017년 한국의 여성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1999년 여성들이 생각하는 성차별 1위에서 5위까지 살펴보면, 1,2위는 가족 내 가사노동에서 이뤄지는 성차별로 명절이나 양육과정에서 겪는 차별이었다. 특히 명절과 제사처럼 많은 노동이 필요한 때에 여성은 주로 일을 하고, 남성은 쉬는 문화가 당시 큰 이슈였다. 다음으로 3위는 학교나 직장, 공공장소에서 경험하는 성희롱으로, 여성이 어떤 상황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긍정의 메시지로 생각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4위는 도로에서, 5위는 학교에서 성차별을 느꼈다.

표1. 여성이 일상에서 느끼는 성차별 순위 (1999년, 2017년)

순위	1999년	2017년
1위	명절, 제사상의 성차별 ("명절, 여자에겐 중노동, 남자에겐 쉬는 날")	가족 관계에서 ("오빠 밥 좀 챙겨줘", "위험하니까 일찍 일찍 다녀라")
2위	양육상의 성차별 ("아들하나 열 딸 안부럽다")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택시기사가 아무렇지 않게 반말을 해요")
3위	학교, 직장,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여자의 NO는 YES")	학교에서 ("왜 여자교복은 치마 밖에 없죠?", "여자는 피구, 남자는 축구")
4위	도로상의 성차별 ("집에서 애나 보지, 여자가 웬 운전?")	일터에서 ("결혼은 언제쯤? 우리는 오래 일할 사람 구하는데?")
5위	수업내용상의 성차별 ("여자가 공부는 뭐하러 해? 시집만 잘가면 되지")	대중매체에서 ("며느리는 싸가지 없고, 시어머니는 표독스럽게")
6위	커피, 카피, 잔심부름 ("미스김, 커피 한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만 빼면 예뻐 것 같은데")
7위	모집과 채용상의 성차별 ("이왕이면 날씬하고 어려야")	커뮤니티 안에서 ("뒷풀이 때 여자들은 남자들 사이사이에 앉으라고 한다")
8위	선정적 광고 ("벗길수록 잘 팔린다")	은행대출, 부동산계약과 같은 신용업무 안에서 ("집 계약 할 때 '남편 분은 언제오세요?' 라고 질문을 자주 들었다.")
9위	생활관습상의 금기와 터부 ("여자가 아침부터 재수 없게")	기타
10위	신용상의 성차별 ("남편의 보증이 필요해요")	
11위	성차별적 민원태도 ("아줌마 등본 나왔어요")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2017년 성차별 보고서>, pp.39-40

한편, 2017년 여성들이 성차별을 경험하는 공간 1위는 가족으로, 부모를 대신해서 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빠나 남동생을 챙기거나, 치안을 빌미로 귀가를 단속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다음으로 2위는 대중교통, 3위는 학교, 4위는 일터, 5위는 대중매체였다. 1위부터 5위까지, 1999년도나 2017년도나 여성들은 가족, 학교, 일터, 대중교통 즉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모두 가장 친밀한 곳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 실태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2017년 “한국은 성평등 국가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93%가 “아니오”라고 답했고, “예”라고 답한 비율은 2%뿐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여성들은 어떻게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것을 해석하고 있을까?

차별은 어떻게 혐오의 언어가 되었나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발제문 <바로 여기서 차별에 대항 한다: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정동적 전환>에서 오늘날 여성혐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의 여성들은 공사영역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부터 익명적인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일상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에 대항하는 언어로 여성들은 ‘여성혐오’라는 말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여성 개인의 몸을 관통하는 차별의 언어와 규제들, 즉, 외모 지적, 다이어트 강요, 감정노동 요구 등이 심해지면서 ‘여성으로 차별 받은 경험이 없는’ 여성은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을 구성하고 있다. 2017년, 이런 차별을 여성들은 ‘혐오’라고 명명했다. (김현미, <2017 성차별보고서>, p.10)

물론 김현미 교수는 ‘혐오’라는 말이 “타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내포하기 때문에 대안적 사유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스스로 ‘여성혐오’라는 언어를 전유한 데에는 그만큼 여성의 삶 전역에서 의도적인 여성비하, 협박, 적대감이 증폭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혐오”라는 말을 통해 차별과 여성성 비하를 드러내기 위한 언어라고 했다.

여성들이 한국의 성불평등적 상황을 ‘혐오’로 개념화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 의한 적대감이 만연하고, 가까운 참조집단에게도 설명이나 설득이 불가능한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혐오’라는 단어는 낙관적 개선의 불가능성을 고발하는 선택이다. 어릴 때부터 주목받는 것에 익숙하고, ‘공부만 잘하면 인생이 풀린다’라고 믿었던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은 학교, 일터, 미디어 등에 만연한 여성 차별이나 비하의 세밀한 견고함을 발견하며, 이를 명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거대한 공모적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김현미, <2017 성차별보고서>, p.11)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최근 몇 년 사이 ‘페미니즘’은 젊은 여성들에게 하나의 운동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떤 비평가는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수의 여성이 아니라, 여성 전반에 걸쳐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명명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현미 교수는 토론회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페미니즘’은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사회적 조건에서 “자발적 아이덴티티”로 요청된 것이라고 말을 이어나갔다. 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는 ‘가부장제’를 통해 성차별을 고발했다면, 오늘날 청년세대는 ‘혐오’를 통해 증폭하는 차별을 고발한다고 보았다.

- 학교: 공적영역에서 경험하는 성역할과 고정관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일상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적 공간은 어디일까? 2017 <나여기 캠페인 2>에서 면담을 한 10대 여성들은 “학교”라고 말했다. 학교는 성평등 가치를 지향해야 할 공적영역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여성들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체감하고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교는 여학생들에게 당당해지거나, 리더십을 가지거나,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 이면서 동시에 여자다움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곳이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김하수는 음악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학교에서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를 강요하고 교사를 하면 시집 잘 간다고 말한다(<2017 성차별보고서>에 수록된 사례). 고등학생에게 성형을 권하는 교사들도 있다. 성폭력 예방 교육 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강화하거나 대부분 일 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여성주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을 맡기도 했다.

한편, 윤명화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여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대표적으로 학교 내 여성교사의 비율이 높더라도 학생들이 생리 공결제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여학생들이 바지 교복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교사의 성차별적 언어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들의 성평등 인식 확대 또한 시급함을 말했다.

- 가족: 엄마친구, 딸바보, 삼촌팬의 아이돌 사이에서

한국에서 ‘딸’은 과거 ‘아들’에 비해 선호되는 듯하다. 하지만 ‘딸’을 선호하는 현상은 성차별적 문화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딸’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교수는 가족 내에서 ‘딸’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획득하고 있다며, 소자녀 핵가족에서 딸의 가치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테면, 엄마에게는 가사노동의 서러움이나 냇두리를 들어주거나 함께 쇼핑을 하거나, 유행을 안내하는 친구로서 딸의 역할이 강요되고, 아버지에게는 ‘유사 애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미디어에서 가공된 ‘딸바보’ 이미지는 딸을 사랑하고 딸의 요구에 적극적인 아버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아버지의 지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삼촌들이 여성 아이돌을 대하는 ‘삼촌팬’은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소비하는 존재로 여성을 위치 짓는다.

문제는 딸에 대한 선호가 가족 내 딸의 지위를 높이거나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방향



으로 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단속이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루어진다. 다이어트를 강요한다거나, 복장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딸의 외모를 요구한다. 또한 어린 여성 연예인에게 애교를 강요하는 문화는 가족 내에서도 이어진다. “애교는 젊은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원으로 추앙되면서 집, 학교, 일터, 미디어의 전 영역에서 교환가치를 갖고 유통된다.”(김현미, <2017 성차별 보고서>, p.24)

이 외에도 여성들은 직장에서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프레임과 싸우며, 대중교통, 미디어, 행정서비스 등 삶의 전 영역에서 견고한 남성동맹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현미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여성들이 ‘혐오’라는 개념을 통해 일상에서 성차별을 밝히고 변화시키려는 집단적 감정이 표출된 결과라고 말했다.

변화를 여는 10가지 성평등 과제

두 번째 발제는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복지·회원팀 팀장이 맡았다. 김희영 팀장은 2017년 <나여기 캠페인2>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2017년 한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 사례 중 1위는 가족 관계였다. 4,788건 중 1,092건이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다. 참여자들은 가사/돌봄 노동 강요, 통금/규제, 성별고정관념/외모 지적/애교 강요, 가족 내 남성과 대우 차이/남아선호사항, 제사/명절/장례 차별, 폭력 등을 순서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맞벌이인데, 가사노동은 주로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참여자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다.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여성들은 신용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성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무시/반말/설명미비, 남편 및 보호자 요구, 대출 및 카드발급 제약/명의 차별, 성희롱/플러팅(집적대는 행위)/기타 등이 있다. 여성들의 경제참여율은 남성의 경제참여율 못지않게 높지만, 여전히 여성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비경제적인 주체로 대우를 받을 때가 많다.

설문에 참여한 여성들이 생각하는 ‘성평등’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 “내가 노브라로 편하게 티셔츠 한 장 걸치고 다닐 수 있는 사회”
- “제사상 같이 차리는 부부”
- “뮤지컬 시카고처럼 극악무도한 여성이 활개 치는 사회”
- “여배우, 여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기사”
- “내가 여성인 것을 구지 밝힐 필요가 없는 세상, 성별을 궁금해 하지 않는 사회”
- “택시 안에서 지인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안전한 느낌”
- “안경 쓰고 화장 안한 여성뉴스앵커”

제도적 변화를 통한 것보다, 문화적 변화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들이다. 이는 곧 한국의 성차별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견고하게 이루어지며 동시에 쉽게 변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10가지 2017 성평등 과제를 보아도 그렇다. 이 과제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선언이자, 일상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표2. 2017년 10가지 성평등 과제

1. 딸이라는 역할은 없다.
2. #우리에게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3. 우리는 얼굴로 일하지 않는다.
4. 통금? 치안은 국가에게 맡기세요.
5. 2017 택시, "반말 없는 곳으로 가 주세요."
6. 외모플레인은 이제 그만
7. 제가 저의 보호자입니다만?
8. 다양한 한계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여성캐릭터를 보고 싶다.
9. 여자니까 말고 동료니까 리스펙(respect)
10. 벽 밀치기, 손목 끌기, 기습키스 그만하자♪그만하자♪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2017년 성차별 보고서>

앞서 소개한 것처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딸’역할은 옛날 가부장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대신 오히려 엄마에게는 친구 같은 딸로, 아빠에게는 애인 같은 딸의 모습으로 제약 당한다. 그리고 일터에서는 능력보다 외모지적이, 택시라는 대중 교통 공간에서는 잦은 질문과 훈계와 반말이 난무한다. 또한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로맨틱한 장면이 실은 데이트 폭력임을 경고하는 내용도 있다. 만약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 하나씩 지워나간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 여성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과 질문에는 여성가족부 사무관부터 활동가, 고등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특히 학교 안에서 교사가 재생산하는 차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은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원하고, 교사는 교사인권을 주장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 교사의 위치가 사교육 시장과 맞물려 대입과 교육권이 옮겨가면서 지금으로서는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관리, 훈육, 통제의 기능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학교가 공적영역이라는 인식이 필요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여성교사의 위치 즉, 복합적인 차별을 당하는 구조에서 여교사의 임파워먼트도 함께 고민을 해야한다는 논의를 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 소속 여성정책 사무관은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9월부터 성평등 문화 확산 TF를 구성하고, 사업자나 1인 미디어 성평등 매뉴얼 제작을 위한 작업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7 성차별 보고서> 발표장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다양한 세대의 여성이 모여 오늘날, 한국이라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한국의 여성은 외모 대신 가능성과 능력을 지닌 주체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변화의 주체가 되려는 여성이 늘어나는 한 2027년, 우리는 새로운 보고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2017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7년 10월 31일 현재

분야	발간일	제목	작성자
경제	01/03	진짜 '경제민주화'로 ⑤ 하청 중소기업, 글로벌 중견 대기업 될 수 없나?	정승일
노동	01/09	2017 전망보고서 (1) :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심화	송민정
경제	01/12	일본은행이 선택한 화폐적 해법, 2017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 수 있을까?	송중운
복지	01/16	2017 전망보고서 (2) : '불통'에 멈춰버린 사회, 안전망을 세워야 한다	최정은
국내외 정세	01/23	2017 전망보고서 (3) : 국내외 정세, 대전환을 탐색하는 2017	박세길
세계경제	02/03	2017 전망보고서 (4) : 2017년 세계경제, "공포의 해"가 될 것인가?	송중운
마을	02/06	2017 전망보고서 (5) : 다가오는 건거의 계절, 마을살이의 운명은?	강세진
부동산	02/10	2017 전망보고서 (6) : 장기불황 초입에 들어서는 주택시장	권순형
보건의료	02/13	2017 전망보고서 (7) :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고병수
종합	02/22	2017 전망보고서 (8) : 2017년 7대 분야를 전망하다	새사연
부동산	03/08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①	권순형
부동산	03/10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②	권순형
부동산	03/16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③	권순형
부동산	03/23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④	권순형
주거	04/12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3년을 버티며 남긴 고민들	황서연
선거	04/18	The Plan: 민주주의 깨트리기	강세진
사회복지	04/27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이은경
선거	04/29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광학식투표분류에 따른 후보자간 상대적 불균등성 규명	강세진
보건의료	05/02	한국 보건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이은경
주택	05/10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 및 활성화 방안	강세진
마을	05/25	관계와 숫자로 마을공동체 드러내기	강세진
주거	05/31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탐험기 ①	황서연
주거	06/22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탐험기 ②	황서연
마을	07/13	마을살이에 대한 공공지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강세진
부동산	07/17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첫 단추는 잘 끼워졌는가?	권순형
기획	08/29	'사람중심경제'란 무엇인가?	박세길
마을	09/11	마을에서 연구하기: 2017년 마을살이 작은연구	강세진
노동	09/12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하다 ①	천주희
노동	09/29	국내 노동시장 동향 및 최근 비정규직 현황	송민정
여성	10/31	2017 성차별보고서: 차별은 어떻게 혐오의 언어가 되었나	천주희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